

고로쇠나무 樹液 利用客의 飲用形態에 關한 研究¹

安鍾萬² · 金俊暹² · 姜學模²

A Study on Patterns of Sap Water Users of *Acer mono*¹

Jong Man An², Jun Sun Kim² and Hag Mo Kang²

要 約

본 연구는 고로쇠나무 수액을 음용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한 이용객의 수액 이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1997년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 고로쇠나무 수액의 주요 채취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지역, 광양시 백운산 옥룡 지역, 순천시 조계산 선암사 지역의 3개 지역을 설문 장소로 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현지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구분 없이 각 지역별로 100인씩 전체 300인을 조사하였다.

한편, 수액 이용객의 음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용 목적, 음용을 위한 방문회수, 이동수단과 체재일정, 이용형태 및 1인당 음용량, 음용후의 소감과 효능, 앞으로의 음용계획과 음용형태, 가공수액에 대한 의향 등을 설문하였다.

그 결과, 수액은 전 계층에 걸쳐 광범위하게 음용되고 있었으며, 음용 목적은 주로 건강과 친목 도모였으나, 병 치유를 위한 음용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수액 음용을 위한 방문 회수는 처음 방문한 이용객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수액 음용을 위한 이동 수단은 자가용이 가장 많아 71%를 차지하였다. 수액 음용을 위한 체재 일정은 이용객의 60%가 당일계획으로 방문하였으며, 1박2일과 2박3일은 40%이었다. 이용객 1인당 수액 음용량은 3~6ℓ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ℓ 미만 23%, 9~12ℓ 23% 등의 순이었다. 수액 음용후의 소감에 대해서는 달다와 좋다가 74%를 차지하였으며, 효능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모르겠다가 가장 많았다. 앞으로의 수액 음용계획에 대해서는 79%가 음용할 계획이었으며, 수액 음용시 체재일정에 대해서는 당일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박2일 29%, 2박3일 6% 등의 순이었다. 수액 음용형태에 대해서는 수액과 함께 음식을 먹겠다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으나, 음식+수액+숙박의 답변도 43%이었다.

가공 수액의 음용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음료 싫다, 품질 의심, 변질 우려, 약효 저하 등의 이유로 이용객의 54%가 마시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rinking patterns of sap water of *Acer mono* by on-the-spot visitors. The survey was done from late-February to mid-March in the 3 major sap water tapping regions, such as Piagol of Mt. Chiri in Kurey, Okryong of Mt. Baekun in Kwangyang, and Mt. Chokey in Suncheon, Chonnam. A total of 300 visitors over 20 years old, 100 visitors in each region, were interviewed personally to make up questionnaires, irrespective of sex.

The purpose of drinking, the frequency of visit, the modes of traffic, the length of stay, drinking

¹ 接受 1998年 4月 1日 Received on April 1, 1998.

² 順天大學校 農科大學 山林資源學科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College of Agriculture,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40-742, Korea.

amount per person, one's opinions after drinking, drinking plans and patterns, and intention of drinking processed sap were investigated and examined.

Wide range of age groups from twenties to sixties drank sap water. Visitors drank sap water in order to keep health, to promote mutual friendship, and so on. 44% of sap drinkers visited for the first time, and 71% visited by private automobiles holding the first place. 59.7% of visitors spent only a day, but 40.3% passed one or two nights to drink sap water.

For drinking amount of sap water, 3-6 ℓ was consumed by 31.3% of visitors, under 3 ℓ or 9-12 ℓ by 22.7%, 6-9 ℓ by 12.7%, and so forth. 74% of visitors felt sap water sweet and favorable, but were doubtful about the efficacy of sap water. 79.0% of visitors had a plan to drink sap water again next year, 40% of whom preferred a day's visit to overnight staying (29%) or 3 days' staying (6%). 45% answered to plan to drink sap water with having meals, and 43% with having meals and passing a night. More than half (54.3%) of the visitors were inclined not to drink processed sap water for the reasons of unreliable quality, unwillingness for process, change in quality, etc.

Key words : drinking pattern, sap water of *Acer mono*, purpose of drinking, frequency of visit, modes of traffic, the length of stay, drinking amount per person

緒 論

1. 研究目的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중 수액을 채취하여 음용할 수 있는 수종은 자작나무류와 단풍나무류로서, 자작나무류의 대표적인 수종은 자작나무, 거제수나무, 물박달나무등이며, 그 자원은 490km³(10,500千本)이 된다. 단풍나무류의 대표적인 수종은 고로쇠나무이며 그 자원은 320km³(7,650千本)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음용되고 있는 수액도 고로쇠나무의 수액이다(강선구, 1990; 김종찬, 1996; 산림조합중앙회, 1990; 송장호, 1994; 이창복, 1993; 임경빈, 1987; 임경빈, 1990; 임업연구원, 1994a; 한국독립가협회, 1992).

한편, 단풍나무과 고로쇠나무(*Acer mono* MAX.)와 자작나무과 거제수나무(*Betula costata* T.) 등 이들 수종과 동속식물의 수액을 건강음료로서 마시는 풍습은 소련, 중국, 일본 등에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약으로 이뇨, 변비, 위장병 등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이들 수액 성분에 관심이 높으며(김충모 등, 1991), 일본 북해도에서는 자작나무 수액을 음료화하여 마시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산림청, 1995).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공하지 않은 수액을 구입하여 천연 그대로 음용하거나, 수액채취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음식과 더불어 수액을 음용 또는 숙박하는 현재와 같은 이용형태는 우리나라

만의 독특한 수액 음용형태라(경향신문, 1996; 한겨레신문, 1995; 박명규, 1985)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각종 질병 또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로쇠나무 수액은, 채취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건강음료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는 음용을 위하여 수액이 생산되는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과 더불어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전환의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의 수액 채취 지역 방문은 그 지역의 관광자원 또는 특산물 등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지역간 교류의 기회로도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로쇠나무 수액 음용을 위하여 현지를 직접 방문한 이용객의 성향과 음용 형태를 파악, 천연음료인 수액의 보급 확대로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수액이 산촌주민과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산물로 위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제공이 그 목적이다.

2. 研究方法

1) 調査地 選定

본 연구를 위하여 1997년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만을 이용하여 4차례(8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장소는 전라남도 고로쇠나무 수액의 주요 채

취 지역인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지역과 광양시 백운산 옥룡 지역, 그리고 순천시 조계산 선암사 지역의 3개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위의 3개 지역은 전라남도 28개 시·군 가운데 가장 고로쇠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임업연구원, 1994b)으로, 예전부터 수액채취가 활발하여 이용객에게는 널리 알려진,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수액채취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설문장소로 선정한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지역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과 지리산 국립공원내에 있으며, 광양시 백운산 옥룡 지역은 서울대학교 남부 연습림내에 위치하고 있다. 순천시 조계산 선암사지역은 선암사 사찰입구를 주변으로 형성된 상가(음식점)를 설문장소로 정하였다.

2) 調査內容

설문은 수액을 음용하기 위하여 수액을 채취 판매하고 있는 현지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구분 없이 무작위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각 지역별로 지리산 피아골 지역(구례군 토지면) 100인, 백운산 옥룡 지역(광양시 옥룡면) 100인, 조계산 선암사 지역(순천시 죽학리) 100인, 전체 300인으로 하였다.

설문은 수액을 음용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를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얻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설문장소로는 3개 지역 모두

수액과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상가(음식점)또는 수액을 직접 채취하여 음식과 더불어 수액을 판매하고 있는 채취세대로 정하였다.

한편, 조사내용은 수액 이용객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객의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동반 구성원, 동반 인원, 세대별 수입, 이용객 1인당 예상 경비 등을 설문하였다. 그리고, 이용객의 음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액 음용 목적, 수액 음용을 위한 방문회수, 이동수단과 체재일정, 수액의 이용형태 및 1인당 음용량, 수액 음용후의 소감과 효능, 앞으로의 음용계획과 음용형태, 가공 수액에 대한 의향 등을 설문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중 이용객의 성향은 지역별로, 이용객의 음용형태는 지역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本 論

1. 樹液 利用客의 性向

1) 樹液 利用客의 年齡, 居住地, 學歷, 職業別 現況

수액 이용객의 성향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는 조사대상 300인 가운데 남자가 178인 59%, 여자 122인 4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0대 28%, 50대 23% 등의 순이었다.(표 1)

表 1. 利用客의 年齡別 現況

單位: 人, %

지역명	구분	합계	연령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합 계	합 계	300	18	83	101	68	25	5
	구성비	100.0	6.0	27.7	33.7	22.7	8.3	1.7
	남	178	8	57	58	35	18	2
	구성비	100.0	4.5	32.0	32.6	19.7	10.1	1.1
	여	122	10	26	43	33	7	3
	구성비	100.0	8.2	21.3	35.2	27.0	5.7	2.5
구례군	계	100	6	24	31	29	10	
	남	59	3	20	14	16	6	
	여	41	3	4	17	13	4	
광양시	계	100	7	26	38	23	2	4
	남	53	3	15	21	12	1	1
	여	47	4	11	17	11	1	3
순천시	계	100	5	33	32	16	13	1
	남	66	2	22	23	7	11	1
	여	34	3	11	9	9	2	

이용객은 각 시·군에 거주하는 그 지역민 보다는, 전남 도내의 각 지역에서 방문한 이용객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이외의 타 지역에서 방문한 이용객은 26인으로 9%를 차지하였다.(표 2)

이용객의 학력별 현황은 고졸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졸 이상 22%, 국졸 14% 등의 순이었다.(표 3)

이용객의 직업은 주부가 2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자영업 25%, 회사원 17%, 농업·어업 13% 등의 순이었다.(표 4)

2) 樹液 利用客의 同伴構成員, 同伴人員, 世帶收入, 豫想經費 現況

수액 음용시 이용객의 동반 구성원은 가족이 29%, 친구 27%, 계모임 17% 등의 순이었다.(표 5)

이용객의 동반 인원은 6~10인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1~15인이 29%, 5인 이하 14% 등의 순이었다.(표 6)

이용객의 세대당 월평균 수입은 100~200만원의 계층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00~300만원 26%, 100만원 미만 12% 등의 순이었다.(표 7)

表 2. 利用客의 居住地別 現況

單位：人, %

지역명	구분	합계	해당시·군	관외(전남)	타 지역						
					계	서울	경기	전북	경남	경북	충남
합계	합계	300	84	190	26	9	6	5	3	2	1
	구성비	100.0	28.0	63.3	8.7	3.0	2.0	1.7	1.0	0.7	0.3
구례군	계	100	1	84	15	7	2	5			1
광양시	계	100	24	69	7	1	3		3		
순천시	계	100	59	37	4	1	1			2	

주: 1) 관외(전남)

구례군(84인): 여수, 여천 69인, 곡성 6인, 순천 4인, 나주 1인, 광양 1인, 강진 1인, 화순 1인, 광주 1인.

광양시(69인): 여수, 여천 45인, 순천 16인, 광주 4인, 벌교 2인, 보성 2인.

순천시(37인): 여수, 여천 25인, 해남 4인, 영암 2인, 광주 2인, 벌교 2인, 목포 1인, 광양 1인.

2) 타지역(26인): 경기 6인(인천 5인, 부천 1인), 전북 5인(익산 5인), 경남 3인(창원 2인, 양산 1인), 경북 2인(대구 2인), 충남 1인(대전 1인).

表 3. 利用客의 學歷別 現況

單位：人, %

지역명	구분	합계	무학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무응답
	구성비	100.0	2.7	14.0	11.0	42.3	2.0	22.0	6.0
구례군	계	100	4	15	15	40	2	20	4
광양시	계	100	3	24	12	33	2	14	12
순천시	계	100	1	3	6	54	2	32	2

表 4. 利用客의 職業別 現況

單位：人, %

지역명	구분	합계	주부	자영업	회사원	공무원·교사	농업·어업	전문직	기타
	구성비	100.0	26.0	25.0	17.3	10.3	12.6	3.0	5.6
구례군	계	100	23	22	22	7	17	3	6
광양시	계	100	33	22	10	10	18	1	6
순천시	계	100	22	31	20	14	3	5	5

주: 공무원·교사에는 은행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직은 설계사, 목사, 변호사, 한의사 등의 직업이며, 기타는 임노동(3인), 학생(3인), 무직(10인) 등임.

表 5. 利用客의 同伴內容 現況

單位：人，%

지역명	구분	합계	가족	친구	계모임	직장	종교	선·후배	이웃	친척	무응답
		합계	300	87	82	50	23	17	17	12	11
	구성비	100.0	29.0	27.3	16.7	7.7	5.7	5.7	4.0	3.7	0.3
구례군	계	100	13	7	23	18	17	7	10	5	
광양시	계	100	39	30	20	5		3	1	2	
순천시	계	100	35	45	7			7	1	4	1

表 6. 利用客의 同伴人員 現況

單位：人，%

지역명	구분	합계	5인 이하	6~10	11~15	16~20	21~29	30인 이상	무응답
		합계	300	82	115	86	11	25	18
	구성비	100.0	14.0	38.3	28.7	3.7	8.3	6.0	1.0
구례군	계	100	8	21	27	6	19	18	1
광양시	계	100	16	48	32	1	2		1
순천시	계	100	18	46	27	4	4		1

表 7. 利用客의 世帶 收入別 現況

單位：萬원，人，%

지역명	구분	합계	100만원 미만	100~200	200~300	300~500	500만원 이상	무응답
		합계	300	36	106	78	27	14
	구성비	100.0	12.0	35.3	26.0	9.0	4.7	13.0
구례군	계	100	16	41	22	9	4	8
광양시	계	100	18	28	22	7	5	20
순천시	계	100	2	37	34	11	5	11

表 8. 利用客 1人當 飲用豫想 經費

單位：萬원，人，%

지역명	구분	합계	3만원 미만	3~5	5~7	7~10	10~15	15만원 이상	무응답
		합계	300	70	50	85	17	37	17
	구성비	100.0	23.3	16.7	28.3	5.7	12.3	5.7	8.0
구례군	계	100	16	20	30	2	17	10	5
광양시	계	100	21	14	30	6	13	1	15
순천시	계	100	33	16	25	9	7	6	4

수액 음용에 따른 수액과 부대음식에 소요되는 예상 경비는 이용객 1인당 5~7만원이 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만원 미만 23%, 3~5만원 17% 등의 순이었다.(표 8)

2. 樹液 利用客의 飲用形態

1) 樹液 飲用의 目的과 訪問回數

수액의 음용 목적은 친목도모와 건강이 각각 42%와 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병 치유를 위한 음용은 5%에 불과하여, 수액 음용은 봄

을 맞이하여 기분 전환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었다.(표 9)

1990년부터 97년까지 8년간 수액 음용을 위한 방문 회수를 설문한 결과, 1997년 처음 방문한 이용객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2회 17%, 3회 10% 등의 순이었으나, 8회와 10회는 각각 10%와 8%이었으나, 수액을 매년 음용하는 이용객도 적지 않았다.(표 10)

2) 移動手段과 滯在日程

수액 음용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는 승용차가

表 9. 樹液의 飲用目的(1997年 現在)

單位: 人, %

구 분	계	친목 도모	건강	휴식· 휴양	병 치유	스트레스 해소	수액 구입	우연히 방 문	무응답
합 계	300	127	102	17	16	2	1	1	34
구 성비	100.0	42.3	34.0	5.7	5.3	0.7	0.3	0.3	11.3

주: 병 치유 내역

남자: 7인 - 팔저림 1인, 신경통 1인, 간염 1인, 위장·신경통 2인, 위장병·뼈통증 1인, 요도염 1인.
여자: 9인 - 위장 5인, 고혈압·위장병 1인, 다리·뼈통증 1인, 신경통 1인, 전신 허약 1인.

表 10. 樹液 飲用을 爲한 訪問 回數

單位: 人, %

구 분	계	방 문 회 수									
		1회	2	3	4	5	6	7	8	9	10회
합 계	300	132	51	31	20	13	2	4	29	1	17
구 성비	100.0	44.0	17.0	10.3	6.7	4.3	0.7	1.3	9.7	0.3	5.7

주: 방문회수는 1990~97년까지 8년간.

表 11. 樹液 飲用을 爲한 移動手段(1997年 現在)

單位: 人, %

구 분	계	이 동 수 단							무응답
		승용차	승합차	관광버스	일반버스	직장버스	배·버스		
합 계	300	214	46	15	12	10	1	2	
구 성비	100.0	71.3	15.3	5.0	4.0	3.3	0.3	0.7	

表 12. 樹液 飲用을 爲한 滯在日程(1997年 現在)

單位: 人, %

구 분	방문전 체재일정				음용후 행선지 일정			음용을 위한 체재일정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계	자택	1박2일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합 계	300	296	2	2	300	299	1	300	179	98	23
구 성비	100.0	98.7	0.7	0.7	100.0	99.7	0.3	100.0	59.7	32.7	7.7

가장 많아 7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승합차 15%, 관광버스 5%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승용차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가족과 더불어 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편리함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중교통의 불편함이 그 이유였다.(표 11)

수액 음용을 위한 방문은 거의 대부분 여행이나 다른 목적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액 음용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수액 음용을 위한 체재 일정은 이용객의 60%가 당일 계획으로 방문하였으며, 1박2일은 33%, 2박3일은 8%이었다.(표 12)

3) 樹液의 利用形態 및 1人當 飲用量

수액 음용시 이용객은 대개의 경우 음용 장소에서 일정시간 체재하면서 식사와 육류, 주류 등을 함께 하고 있다. 조사대상 300인 가운데 79%가 식사를 하였으며, 64%가 육류를, 61%가 마

른 오징어, 김, 땅콩 등과 같은 간식을, 54%가 주류를 마셨다. 이용객 1인당 수액 음용량은 3~6l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l 미만 23%, 9~12l 23% 등의 순이었으나, 18l(1말) 이상 음용한 이용객은 4%이었다.

한편, 이용객은 수액 음용후 선물 또는 음용할 목적으로 귀가시 수액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액을 구입한 이용객은 전체 조사대상 300인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49인이었다. 구입량은 18l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9l 33%, 19l 이상 6% 등의 순이었으나, 구입을 희망하는 이용객 가운데는 경제적 사정과 수액 부족으로 구입을 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표 13)

4) 樹液 飲用後의 所感과 效能

수액 음용후의 소감에 대해서는 달다와 좋다가 74.0%를 차지하였으나, 그저 그렇다, 모르겠다,

表 13. 樹液의 利用形態와 1人當 飲用量(1997年 現在)

單位: 人, %

구 분	수액의 이용형태						현지에서서의 1인당 음용량								귀가시 구입량						
	계	식사	육류	간식	주류	음료	계	3ℓ미만	3ℓ~6ℓ	6ℓ~9ℓ	9ℓ~12ℓ	12ℓ~15ℓ	15ℓ~18ℓ	18ℓ이상	무응답	계	4ℓ	6ℓ	9ℓ	18ℓ	19ℓ이상
합계	300	236	192	183	161	40	300	68	94	38	68	4	1	12	15	49	1	3	16	26	3
구성비	100.0	78.7	64.0	61.0	53.7	13.3	100.0	22.7	31.3	12.7	22.7	1.3	0.3	4.0	5.0	100.0	2.0	6.1	32.7	53.1	6.1

주: 1) 광양시의 경우는 4ℓ, 6ℓ, 9ℓ, 18ℓ 등 4종의 용기를 비치하여 판매하고 있음.
 2) 간식은 주로 마른 오징어·복어, 땅콩·김, 꿀, 딸기, 과자 등 임.
 3) 식사는 대개 수액을 음용하는 곳에서 주문하나, 음용객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오는 경우도 있음.
 4) 육류는 대부분 닭과 염소이며, 주류는 주로 소주와 맥주, 음료는 콜라가 대부분 임.
 5) 현지에서 수액 음용후, 귀가시 수액을 구입 한 음용객은 조사대상 300인 가운데 49인이었으나, 수액 부족과 경제적 사정으로 구입 못한 음용객은 각각 18인과 3인이었다.
 6) 수액의 이용형태 구성비는 항목/계.

表 14. 樹液 飲用後의 所感과 效能(1997年 現在)

單位: 人, %

구 분	음용 수액의 맛										수액 음용후의 효능									
	계	달다	좋다	그저그렇다	모르겠다	괜찮다	담백하다	독특한향	맛있다	맛없다	무응답	계	모르겠다	병치유효과	기분상	소화효과	효능없다	이뇨작용원활	피부미용	무응답
합계	300	167	55	24	16	7	4	4	2	2	19	300	83	59	28	16	15	10	1	88
구성비	100.0	55.7	18.3	8.0	5.3	2.3	1.3	1.3	0.7	0.7	6.3	100.0	27.7	19.7	9.3	5.3	5.0	3.3	0.3	29.3

주: 수액 음용후 병 치유 효과가 있었다는 음용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남자 26인: 위장병 12인, 신경통 5인, 신경통·위장병 4인, 신경통·신장 2인, 해소 1인, 간·위·신장 1인, 혈액 순환 1인.
 여자 33인: 위장병 19인, 신경통 4인, 두통·위장병 1인, 두통 1인, 신경통·두통 1인, 혈압·신경통 1인, 혈압 1인, 다리·뼈통증 1인, 냉병 1인, 위·신경통 1인, 뼈 통증 1인, 신경통·혈액 순환 1인.

表 15. 앞으로의 飲用計劃과 滯在日程 및 飲用 形態(1997年 現在)

單位: 人, %

구 분	음용계획								체재일정					음용형태						
	계	유				무				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무응답	계	음식+수액	음식+수액+숙박	수액구입	무응답
		건강	타인권유	친목	기타	무응답	계획무	미정	무응답											
합계	300	106	24	8	7	92	13	4	46	300	120	88	18	1	73	300	135	129	5	31
구성비	100.0	35.3	8.0	2.7	2.3	30.7	4.3	1.3	15.3	100.0	40.0	29.3	6.0	0.3	24.3	100.0	45.0	43.0	1.7	10.3

맛 없다 등과 같은 답변은 14.0%이었다. 수액 음용후의 효능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모르겠다가 각각 29%와 28%로 가장 많았으며, 수액의 효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한 이용객은 병 치유 효과 20%, 소화 효과 5%, 이뇨작용 원활 3% 등이었다.(표 14)

5) 앞으로의 飲用計劃과 飲用形態

앞으로의 수액 음용계획에 대해서는 79%가 음용할 계획이었으며, 4%는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음용계획의 목적은 건강이 35%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의 권유 8%, 친목 2% 등의 순이었다. 앞으로 수액 음용시 체재일정에 대해서는 당일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박2일 29%, 2박3일 6% 등의 순이었다.

수액의 음용형태에 대해서는 수액과 함께 음식을 먹겠다라는 답변이 45%로 가장 많았으나, 음식+수액+숙박의 답변도 43%이었다.(표 15)

6) 加工 樹液에 對한 意向

가공 수액의 음용여부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44%가 마시겠다고 답하였으나, 54%는 마시지 않

表 16. 加工樹液의 飲用 與否(1997年 現在)

單位: 人, %

구 분	가공수액의 음용여부																
	계	마시겠다							마시지 않겠다							무응답	
		소계	건강	구입편리	진품이라	자연음료	무응답	소계	품질의심	가공음료가 싫다	변질우려	약효저하	방부제첨가	소량효과무	무응답		
합계	계	300	132	34	20	13	10	55	163	71	21	20	13	6	2	30	5
합계	구성비	100.0	44.0	11.3	6.7	4.3	3.3	18.3	54.3	23.7	7.0	6.7	4.3	2.0	0.7	10.0	1.7
			100.0	25.8	15.2	9.8	7.6	41.7	100.0	43.6	12.9	12.3	8.0	3.7	1.2	18.4	

表 17. 希望하는 加工 樹液의 맛과 價格(1997年 現在)

單位: 人, %

구 분	희망하는 수액의 맛							희망하는 수액의 가격				
	계	천연	향첨가	탄산+감미료+향	탄산첨가	무응답	계	동일수준	높은가격	낮은가격	무응답	
합계	계	300	273	6	3	2	16	300	152	74	55	19
합계	구성비	100.0	91.0	2.0	1.0	0.7	5.3	100.0	50.7	24.7	18.3	6.3

주: "희망하는 수액의 가격"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음료의 평균 가격에 해당하는 500원을 기준으로 설문하였음.

겠다고 답하였다. 우선 마시겠다고 대답한 이용객의 이유는 건강이 2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구입 편리 15%, 진품이라면 10%, 자연 음료 8%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마시겠다고 답한 이용객 가운데는 무응답의 소극적인 답변과 수액 진위를 의심하는 이용객도 상당수 있었다. 한편, 마시지 않겠다고 대답한 이유는 품질 의심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공음료가 싫다 13%, 변질 우려 12%, 약효 저하 8% 등의 순이었다. (표 16)

희망하는 수액의 맛에 대해서는 천연 그대로가 91%로 가장 많았으며, 희망하는 수액의 가격에 대해서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500원 가량의 일반 음료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희망하는 이용객이 51%로 가장 많았다. 조금 높은 가격에도 음용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25%, 조금 낮은 가격을 희망하는 답변은 18%이었다. (표 17)

結 論

고로쇠나무 수액 이용객의 성향과 음용형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수액 이용객 전체 300인 조사대상 가운데 남자는 59%, 여자는 41%를 차지하였으며, 30~5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용객의

60% 이상이 전남 도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학력은 고졸이 42%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주부, 자영업, 회사원 순으로, 동반 구성원은 가족, 친구, 계모임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동반 인원은 6~10인과 11~15인이, 이용객 세대별 월 평균 수입은 100~200만원의 계층이, 이용객 1인당 예상 경비는 5~7만원이 28%로 가장 많았다.

2. 수액 음용의 목적은 대부분 친목도모와 건강이었으며, 병 치유를 위한 음용은 5%에 지나지 않았다. 음용을 위한 방문 회수는 처음 방문한 이용객이 가장 많았으며, 음용을 위한 이동 수단은 승용차가, 체재 일정은 당일 계획이 가장 많았다.
3. 수액 음용시 거의 대부분의 이용객은 식사를 하였으며, 육류와 간식은 약 60%가, 주류는 50% 이상의 이용객이 이용하였다. 이용객 1인당 수액 음용량은 3~6ℓ가 가장 많았으며, 수액 음용후 그 맛에 대해서는 달다와 좋다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효능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모르겠다고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병 치유 효과 20%, 기분상 9%, 소화 효과 5%, 효능 없다 5% 등의 순이었다.
4. 앞으로의 음용 계획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대부분이 음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용목

적은 건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수액 음용시 체재 일정에 대해서는 당일 계획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수액의 음용형태에 대해서는 수액+음식 44%, 수액+음식+숙박 43% 등의 순이었다.

- 가공 수액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44%가 건강과 구입편리의 이유로 음용 계획이었으며, 54%는 품질의심, 가공음료, 번질우려, 약효저하 등의 이유로 마시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희망하는 수액의 맛에 대해서는 천연 그대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희망하는 가격은 500원 가량이 51%로 가장 많았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과제를 고로쇠나무 수액의 보급 확대와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 고로쇠나무 수액은 천연 건강음료로 인식되어 기본 전환과 함께 건강과 친목 도모 그리고 병 치유의 목적으로 그 수요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이용객은 숙박을 하면서 수액을 음용하고 있어 농·산촌에 거주하고 있는 수액 채취자에게는 수액과 수액부대수입이 농한기의 소득증대로 연계되어 가계경제에 크게 기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칩을 중심으로 수액 이용객들의 방문이 집중되고 있어 주차장 부족, 교통체증, 공중전화·약국·가게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액 이용객의 방문이 전체 채취 기간에 걸쳐 분산될 수 있도록 수액의 시기별 효능 또는 성분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수액 이용객의 대부분은 해당시·군과 관외(전남)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전남이외의 타 지역에서 방문한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 가운데 9%에 불과하였다.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수액 채취자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액에 관련한 각종 행사와 정보등 홍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각 채취 지역의 특색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편, 가공 수액의 음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수에 가까운 이용객이 음용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공 수액에 대한 이용객의 호감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가공 수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확실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가격, 판매 용기의 다양화, 수액의 확보 방안, 수요량과 공급량과의 관계, 효율적인 유통 구조의 모색 등에 관한 검토와 연구가 보다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引用 文 獻

- 강선구. 1990. 국산유용활엽수재의 본질과 용도. 한국독립가협회. 산림경영 53 : 21~22.
- 경향신문. 1996. 고로쇠 약수 찾아 봄나들이. 1996년 2월 22일.
- 김종찬. 1996. 우리나라 활엽수종의 분포현황.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업정보 65 : 38~41.
- 김충모·정두례·서화중. 1991. 지리산지역 고로쇠나무 및 거제수(거자수)나무의 수액성분에 관하여-Mineral과 Sugar성분에 관하여-. 한국영양식량학회지 20 : 479~482.
- 박명규. 1985. 고로쇠나무(*Acer mono Max.*) 수액의 약용관행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연세림연구보고 21 : 20~31.
- 산림조합중앙회. 1990. 조림장려수종소개⑩ 자작나무류. 산림 2 : 62~63.
- 산림청. 1995. 산주를 위한 새로운 임업기술 309~320.
- 송장호. 1994. 활엽수자원조사. 산림청 임업연구원. 임업정보 43 : 54~56.
- 이창복. 1993.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522~523.
- 임경빈. 1987. 고로쇠나무. 산림조합중앙회. 산림 6 : 73~77.
- 임경빈. 1990. 고로쇠나무. 한국독립가협회. 산림경영 51 : 21~22.
- 임업연구원. 1994a. 한국산 주요목재의 성질과 용도.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95 : 42~43. 98~99.
- 임업연구원. 1994b. 활엽수자원조사보고서 [전라남도(광주지할시, 남원영림서포함)기본계획구].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84호. 36~135.
- 한겨레신문. 1995. 고로쇠약수 맛보셨나요. 1995년 3월 10일.
- 한국독립가협회. 1992. 수액 천연음료 상품화에 성공. 산림경영 74 : 23.